

# 근본 대책 없는 대학재정

## “등록금 중심 재정 구조부터 바꿔야”

### ‘등록금 인상’만이 답인가

사립대학들 등록금 인상 공식 선언  
교육부 “인상 시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교육연 “국가의 책임” 강조

우리나라에서 11년째 예산이 제자리 걸음하고 임금이 동결된 곳이 있다. 바로 대학이다. 급기야 재정난에 허덕이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거듭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일선 대학들 분위기가 심상찮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해 11월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결의문을 낸 상태다.

#### ◆대학은 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까

대학 시설 노후화는 심화하고 실험실습실은 고등학교보다 못해졌다. 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수업은 설 자리가 점점 줄었다. 2018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은 같은 기간 16.5%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도서관 학술지 구



시계방향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전경. /각대학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동결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매까지 축소하는 형편이니 교육과 연구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하지만 곧 바닥을 드러내고, 건물 감가상각에 대비한 적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원 총원도 최 대한 억제된다. 퇴임 교원의 자리는 채

워지지 않고, 우수 연구자들도 하나 둘 기업 또는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교수들은 “연봉도 기업보다 훨씬 적고 연구시설도 빈약한데 고급두뇌가 대학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학들은 새로운 수입원으로 해외유학생 유치에 주목하게 됐다. 수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유학생 유치다. 수업의 질과 분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기본. 유학생 탓에 조별과제 수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내려앉았다. 영국의 QS

대학평가에선 2015년 이후부터 상위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한국 대학이 한 곳도 없다.

#### ◆‘대학 재정 확충, 근본 대책 필요’

물론,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입학금 폐지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이 등록금 인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교육관련법은 학교법인과 국가도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사립대 총장은 교내 행정과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대학 재정이 열악하다면, 대학 총장은 법인과 국가에 이에 대

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가능하는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은 2016년 회계연도 기준 0.7%에 불과하다. OECD 가입국 평균인 0.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16년 우리나라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5%)과 비교해 0.6%p 높다. 고등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등록금이 고액인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더이상 등록금 인상으로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등록금 중심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들 역시 가장 효율적인 재정 규모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의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저하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경희대, 제16대 총장에 한군태 교수 선임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26일 2019년 제5차 이사회에서 경희대 제16대 총장으로 한군태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총장 임기는 오는 2월14일부터 4년이다.

한 신임 총장은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국 유타주립대와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각각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캠퍼스 부총장, 대



외협력부총장, 정경대학 학장, 언론정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학교밖에서는 한국언론학회 회장,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자금관리위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활동했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 ‘119레오’ 폐방화복 재활용... 1908만원 기부

(학생창업 사회적 기업)

건국대학교는 학생들이 창업한 사회적 기업 ‘119레오’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소방관 공상인정 돕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해 두 차례의 펀딩 모금액과 판매 수익금 등 1908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119레오는 소방관들이 입던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가방 등 패션소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다시 소방관들에게 돌려주는 학생 창업 사회

적기업이다. 공무 중 발생한 암이나 백혈병 등을 상해로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판매 수익의 50%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현재까지 3년 동안 총 다섯 번의 기부금(3410만7750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119레오와 협약을 맺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통해 공상 불승인 문제로 소송중인 소방관의 초기 소송비용으로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 조희연 “교육에 AI 활용 본격화”

(서울시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2020 교육주요업무 5년간 10개 특성화고 AI관련 학교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에 인공지능(AI) 영어 말하기 교육이 시범 실시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특성화고가 개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본격화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변화가 눈에 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보편화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올해를 공교육에서 선도적으로 사물인터넷 환경과 인공지능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5년간 10개 특성화고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학교로 전환해 개교한다.

특성화고 AI전문가 육성을 위해

매년 교원 80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화연수를 하고, 전문 교사 800명을 육성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AI 전문교사가 1명은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이커교육 5개년 계획에 따른 코딩교육, 코딩실현, 3D프린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창작교육이 이뤄지고, 공립초등학교 6개교를 인공지능 활용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활용 선도학교로 지정한다.

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해 2학기부터 활용토록 하고, 3개의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수업평가 영역에서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내용과 수단에서는 다양한 미래기술을 접목해, 학생들이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교육에 선도적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해 올해를 ‘서울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서울대 윤명환 교수 대한인간공학회장 취임

서울대 공대는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56·사진)가 지난 1일, 제20대 대한인간공학회장 겸 2024제주세계인간공학대회(IEA 2024 JEU)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윤 교수가 향후 2년간 회장직을 맡아 이끌어갈 대한인간공학회는 인간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제품과 작업환경 설계를 연구하는 학회다. 또한 윤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2024 제주 세계인간공학대회는 ‘미래인류를 위한 더 나은 인간공학’을 주제로 한 국제대회로서, 전 세계 1500여명의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인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사용자 중심 제품 디자인, 인체 역학, 감성공학,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을 연구하며 학문적 기여를 해 왔다.



/한용수 기자